

# 세계 첫 개막 KLPGA 챔피언십 선수들 '마스크 샷' 등 철통 방역



14일 경기도 양주시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최예림(위쪽부터)과 조아연, 한진선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LPGA 챔피언십 1라운드가 열린 14일 경기도 양주시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마치 철통 경계가 펼쳐지는 1급 보안 시설과 다름없었다. 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프로 골프 투어 대회다. 선수들은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체온을 잰 뒤 자외선 살균기를 거쳐야 선수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었다. 선수들이 경기 전후에 머무는 선수라운지 입장도 철저하게 제한했다. 선수와 캐디 말고는 누구도 출입을 금지했다. 선수 부모조차 예외는 아니다.라운지 안에서 강력한 거리 두기는 여전했다. 식사도 탁자에 혼자 앉아서 먹어야 했다. 박성현(27)은 "혼자 앉아서 앞만 보고 밥을 먹자니 어색했

다. 선수끼리 악수나 하이파이브도 없었다. 경기가 끝나면 서로 안아주던 선수들은 주먹만 살짝 부딪히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스코어 접수처는 아예 야외에 차렸다. 최진하 경기위원장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굳이 좁은 접수처 안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없어 야외에서 스코어 카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외라도 접수하는 직원이나 선수 모두 마스크를 썼다. 스코어카드를 건네려면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KLPGA 박진우 전라라케팅 팀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터라 프로 골프 대회 방역의 스탠더드가 우리라는 사명감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다"면서 "방역에 한 치의 빈틈도 없었던 안 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매길로이 "6월 PGA 3개 대회 연속 출전"

6월 11일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로 재개

남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31·북아일랜드)가 6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일정이 재개되면 첫 3개 대회에 연달아 출전하겠다고 밝혔다. 매길로이는 14일(한국시간)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빙 릴리프' 이벤트 미디어 데이 행사에 참석해 "다시 투어 일정이 재개돼 기쁘다"며 "일정 재개를 위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PGA 투어가 아주 현실적 계획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월 PGA 투어 일정이 재개되면 초반 3개 대회에 연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중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PGA 투어는 6월 11일 개막하는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로 재개될 예정이다. 매길로이는 이날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부터 이어 열리는 RBC 헤리티지와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모두 출전 의사를 밝힌 셈이다.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빙 릴리프'는 매길로이와 더스틴 존슨(미국)과 한 조를 이루고 리키 파울러와 매슈 윌프(이상 미국)가 팀을 이뤄 대결을 벌이는 이벤트다. 미국 플로리다주 주노비치의 세미놀 골프클럽에서 한국 시간으로 18일에 열린다. 총상금 300만달러가 걸려 있으며 수익금 등은 코로나19 돕기 성금으로 쓸 예정이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체육인 6명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유공자 표창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기여

광주·전남 체육인 6명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유공자 표창을 받는다. 14일 광주시,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 유국현 시민체육사업팀 직원과 김록규 곡성군 문화체육과장 등 광주·전남 체육인, 스포츠 행정계 인사 6명이 2019년도 스포츠클럽 유공자로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 유국현 시민체육사업팀 직원은 지역 거점 및 지역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 등 클럽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규송 빛고을스포츠클럽 직원도 같은 이유로 수상자가 됐다. 전남지역 수상자인 김록규 곡성군청 문화체육과장



은 기금 중립 클럽인 곡성클럽에 2020년도 예산 지원금 1억8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김영규 순천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다양한 계층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복지 실현했다. 진정규 새한스포츠클럽 지도자는 21년동안 현장 지도자(야구)로 활동,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이끌었다. 전남도체육회 강재홍 팀장은 전남의 12개 공공스포츠클럽을 적극 관리하고 스포츠클럽 회원 확보를 지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에 마이클 조던

ESPN 선정...2위 제임스·3위 코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7·미국·사진)이 미국 프로농구(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4일 역대 NBA 선수 중 베스트 74를 추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ESPN의 NBA 전문가들의 투표로 선정된 역대 최고의 NBA 선수 리스트에서 1위에 오른 조던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시카고 불스에서 뛰며 팀

을 세 차례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다. 한 차례 은퇴했다가 1995년 시카고로 복귀한 그는 다시 1998년까지 팀에 우승 트로피를 세 번 더 선물했다. 6번 우승하면서 6번 모두 파이널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조던에 대해 ESPN은 "플레이어 안팎에서 세계적인 농구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했고 "그의 경기는 스포츠를 초월해 그의 뒤를 따르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적었다. 조던은 1999년 1월 두 번째 은퇴를 선언했고



2001년에는 워싱턴 워저스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돌아와 2003년까지 선수로 활약했다.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는 현역 선수 '킹' 르브론 제임스(36·미국)가 2위에 올랐다. 제임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뛰었고 2010년부터 2014년에는 마이애미 히트에 몸

담았다. 2014년 다시 클리블랜드로 복귀한 그는 2018년부터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었다. 마이애미 시절에 두 차례 우승한 그는 '고향 팀'인 클리블랜드에도 2016년에 우승컵을 안겼다. 제임스의 정규리그 기록은 27.1점에 7.4리바운드, 7.4어시스트로 조던의 30.1점에 6.2리바운드, 5.3어시스트에 비해 특점은 다소 열세고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는 조금 앞선다. 3만8387점으로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인 카림 압둘 자바(73·미국)가 3위에 올랐고 빌 러셀(86·미국)과 매직 존슨(61·미국)이 4, 5위에 자리했다.

올해 1월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미국)가 9위로 뽑혔다. 최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5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끈 스테픈 커리(32·미국)는 13위로 평가됐다. 전남 미국 CBS가 발표한 '역대 NBA 선수 베스트 15' 순위에서도 조던이 1위, 제임스가 2위를 차지하는 등 6위 윌트 চে임벌린까지 순위가 ESPN과 똑같았다. ESPN 순위에서 10위였던 사릴 오닐이 CBS 순위에서 7위로 높아졌고, ESPN 순위 7~9위였던 래리 버드, 팀 덩컨, 브라이언트가 CBS 랭킹에서는 8~10위로 한 계단씩 밀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더플랫톱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2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 3관 콜 오브 와일드, 시간을 달리는 소녀
- 4관 더 플랫톱
- 5관 호텔 레이크
- 9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씨 퍼버
- 7관 씨네커플 하이큐!! 또 다른 도전, 톰보이 레미제라블: 뮤지컬 콘서트
- 8관 씨네커플 미니 데이 인 뉴욕, 라라랜드 어쩌다 아스널, 보이콧이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강남구 (화양연화)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선우정야 콘서트